

번호: PO-EP-040					
제 목	보험심사간호사의 VDT증후군 자각증상과 영향요인 Subjective Symptoms and Affecting Factors of VDT Syndrome among Health Insurance Review Nurses				
저 자 및 소 속	오효덕1), 전진호2), 이종태2), 손혜숙2), 엄상화2), 김성준2), 이성훈2), 유병철3) 1)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Hyo-Duck Oh1), Jin-Ho Chun2), Jong-Tae Lee2), Hae-Sook Sohn2), Sang-Hwa Urm2), Sung-Jun Kim2), Seong-Hoon Lee2), Byeng-Chul Yu3) 1)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2) Inj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3) Kosi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 스텐
<p>목적: 보험심사간호사들의 VDT증후군 관련 자각증상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의 VDT증후군 발생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p> <p>방법: 영남 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에 소재한 병원에서 보험심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보험심사간호사 233명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자기기입식 우편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VDT증후군 자각증상은 안증상 3문항, 근골격증상 3문항, 심리증상 1문항, 피부증상 1문항, 전신증상 3문항의 총 11개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전혀 없다'(0), '경미하다'(1), '보통이다'(2), '심하다'(3), '아주 심하다'(4)의 5점 척도로 측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특성과, 작업특성 및 근무여건, 작업환경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PC Version 10.0을 이용하여 응답분포의 일원분석과 특성별 평균치비교, 단계별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p>결과: VDT증후군 자각증상의 평균 평점은 근골격증상이 6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증상 54.1점, 피부증상 41.8점, 전신증상 35.2점, 심리증상 32.0점의 순이었다. 평균치비교에서는 VDT사용기간, 근무중 휴식, 책상위 업무공간, 책상 밑 다리뻗기 공간, 키보드사용감, 의자에 팔걸이, 기기수리교체 등에 따라 자각증상에 차이를 보였다. 각 VDT증후군 자각증상에 대한 단계별다중회귀분석에서는 안증상은 기기수리교체 등 업무 지원환경, 적절한 휴식, 작업실 온도(R²=0.106), 근골격증상은 키보드 마우스 사용감, 의자팔걸이, 연령(R²=0.230), 피부증상은 작업실 온도와 상주인원수(R²=0.079), 심리증상은 업무만족도와 키보드 마우스 사용감(R²=0.098), 전신증상은 키보드 마우스 사용감, 업무만족도, 연령(R²=0.141)에 각각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p> <p>결론: VDT증후군 자각증상은 작업자세, 작업환경과 업무만족도, 업무지원 환경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편 설문조사 방식에 의한 자료 수집으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만, VDT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VDT작업자세에 대한 개인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VDT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교육이 강조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p> <p>중심단어 : VDT증후군, 보험심사간호사, 자각증상, 영향요인</p>					